

사도신경(1): 전능하신 하나님을 믿으십니까?

창1:1

· 사도 신경이 중요한 이유는 이것이 기독교 신앙의 가장 중요한 표준이 되기 때문이다. 그리고 이것은 당연히 우리에게 구원 신앙이 있는 지 없는 지 확인하게 해주는 기준이 된다. 그런 의미에서 사도 신경은 신앙 교육의 기초 자료로도 매우 유용하다.

1) 성부 하나님에 대한 신앙고백은 하나님의 창조를 믿느냐에서 시작된다.

· 이 고백이 분명하다면 그 다음 하나님이 예수님을 통해 우리를 구원하셨다는 것도, 우리가 이 땅에 사는 동안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호하시고 인도해 가신다는 말도 다 믿을 수 있기 때문이다.

· 그러나 다윈의 진화론 이후 사람들은 하나님의 창조를 부인하고 있다. 그런데 이것은 사실 세속화에 기인한 것이었다. 결국 이성과 신앙을 분리시킨 윌리엄의 유명론(nominalism)으로 시작된 세속주의는 인간의 타락한 이성을 가지고 신앙을 판단하고 해석하기 시작했다. *르네상스와 비평주의적 성경해석의 등장

· 성경을 인간의 이성으로 이해할 수 있는 부분만 받아들이고, 이성적으로 이해되지 않는 부분은 이해될 수 있도록 성경을 짜깁기 하는 것이다. 결국 이런 세속주의는 기독교 신앙을 허물어뜨리기 시작했고, 나중에는 진화론과 같은 자연 과학 분야에 까지 영향을 미쳤다. *1859년에 '종의 기원'에서 다윈이 주장한 '진화론'의 허구성

· 결국 창조인가 진화인가의 문제는 과학의 문제가 아니라 신앙의 문제이다. 그래서 성령께서 우리의 영혼이 거둬나게 해서 구원의 은혜를 받게 하신 성도들은 하나님의 창조를 믿음으로 받아들인다.(히11:3)

2) 두 번째로 우리는 하나님의 전능성을 믿는다.

· 성경에 많은 기적들이 나오지만 사실은 그 모든 것 중에 가장 엄청난 기적은 바로 창조이다.

· 폰 라드(Von Rad)는 창세기 주석에서 אֵל, 곧 '창조하다'란 동사는, 재료를 사용하지 않은 창조이기 때문에 '무에서의 창조(Creatio ex nihilo)'를 의미하며, 또 전혀 힘들지 않고 창조한다는 의미를 포함하는 것으로 하나님의 전능성을 나타낸다고 했다.

· 구약 성경에 나오는 한 단어로 된 하나님의 이름은 세 개가 있다. 언약을 지키시는 하나님을 말할 때 쓰는 '여호와', 피조물의 주인으로서 통치하시고 다스리는 분이심을 나타내는 '아도나이', 이방신들과는 비교될 수 없는 절대적인 힘을 가진 하나님을 말할 때 쓰는 '엘로힘'이다. 그런데 '엘로힘'이라는 단어가 가장 많이 쓰였다는 것은, 곧 하나님의 전능성이 하나님을 나타내는 가장 대표적인 특성임을 의미하는 것이다.

· 하나님이 전능하신 능력으로 우주 만물을 창조했다면, 그것은 곧 하나님께는 어떤 기적도 가능하다는 것을 의미한다. 당연히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우리의 구원도 믿을 수 있는 것이며, 모든 삶의 과정을 하나님께서 책임지시고 이끄신다는 것도 믿을 수 있다.

3-1)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며 그분의 도우심 가운데 살아갈 수 있다.

· 하나님을 믿는 성도에게 주어진 특권 중의 특권이 바로 기도하는 것이다. 사실 우리 좋은 컴퓨터도 전원에 연결되어 있지 않으면 아무 쓸모가 없어진다. 기도는 하나님

의 힘을 공급받게 하는 전원 플러그와 같은 것이다.(삼상2:6,7) 전능하신 하나님을 믿는다고 신앙 고백도 하면서도 정작 기도하지 않는 사람이 가장 어리석은 사람이다.

· 안타깝게도 우리는 너무나 하나님을 찾지 않는다. 그래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들 중에 하나가 종종 우리 인생 가운데 뜻하지 않는 일을 벌이시는 것이다. 그래서 그런 일들을 통해서라도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을 경험하게 하시려는 것이다.(렘33:3)

· 뭔가 자신의 뜻대로 되지 않는 상황에 처하게 되었을 때 불평하고 낙심할 일이 아니다. 원망만 하고 있을 일이 아니다. 주 앞에 나아가 부르짖어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왜 그런 일들이 우리의 인생에 있게 되었는 지 크고 비밀한 일을 내게 보여주시는 것이다.

*근육 질환으로 죽어가던 형제를 살려내신 하나님

3-2) 어떤 상황에서도 하나님을 신뢰하는 가운데 평안을 누리며 사는 것이다.

· 세상은 불확실하기에 불안하다. 그러나 정작 중대하고 심각한 문제에 대해서 우리는 서로에게 어떤 도움도 줄 수 없다. 무관심해서가 아니라 무능해서 그렇다. 그러나 전능하신 하나님을 나의 하나님으로 모시면 그분이 나의 모든 삶을 책임져 주시고, 보호해 주신다.(사43:1,2)

· 전능자 하나님이 나의 창조주 나의 하나님임을 확실히 믿고 살아가면 사실 어떤 염려스러운 상황에서도, 어떤 불평스러운 상황에서도 하나님을 기대할 수 있기에 평안 가운데 살아갈 수 있다. 그리고 진정한 신앙인의 모습은 바로 그런 모습 속에서 나타난다.

*힘든 여건 속에서도 평안과 감사로 살아가시는 선교사님의 삶을 통한 도전

3-3) 마지막으로 청지기의 삶을 사는 것이다.

· 하나님은 우리 자신을 포함한 우주 만물을 창조하셨다면 당연히 우리 인간에 대한 절대 주권도 갖고 계신다. 다시 말하면 우리는 하나님에 의해 창조되었을 뿐 아니라, 하나님을 위해 창조되었다.(사43:21)

· 하나님은 당신과 사랑의 관계를 맺도록 인간을 창조하셨고, 그가 그런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면 그만큼 축복해 주신다. 즉 인간의 행복과 하나님의 영광은 동전의 겉과 속처럼 서로 밀착되어 있다는 말이다.

· 그러므로 하나님을 믿는 성도들은 자기 주권을 포기하고 하나님을 주님으로 모셔야 된다. 그게 청지기의 삶이다. 그렇게 믿고 신뢰하고 주님 뜻대로 순종하면 반드시 승리하는 인생을 살게 되어 있다. 그리고 그렇게 할 때 진정한 인생의 의미를 알게 되고 진정한 행복이 있게 되어 있다.

· 놀라운 것은 내가 위로를 받을 때만 아니라, 내가 누군가를 위로할 때도 생명력을 가져다주는 홀몬이 나온다고 한다. 그리고 위로와 격려는 꼭 말로만 하는 것은 아니다. 항상 하나님이 일하심을 신뢰하며 웃음뎀 얼굴로 살아갈 때 사람들은 위로 받는다.

학습 및 적용 문제:

- 1) 전능하신 하나님을 나타내는 것들은 어떤 것들이 있는 지 설명해보라.
- 2) 전능하신 하나님을 신뢰하면 우리는 어떤 마음과 자세로 신앙 생활을 할 수 있는 지 세 가지를 설명해보라.
- 3) 나는 하나님의 전능성을 얼마나 믿고 있는 지, 그렇기에 실제 신앙 생활을 어떻게 하고 있는 지 나누어보자.